

취약계층 고용혁신모형 연구

A Study employment innovation model for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조선구* 노영**

목 차

- | | |
|----------------------|---------------------|
| I. 서론 | IV. 취약계층 고용혁신모형의 제안 |
| II.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기존연구 | V. 결론 |
| III. 외국의 취약계층 고용 모형 | |

Key Words : 취약계층, 고용혁신모형, 장애인고용, 원격근무센터(telework), 원격교육센터(distant education center)

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employment innovation model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전공 교수, sgcho@kornu.ac.kr, (041)570-7944

**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전공 교수, ynoh@kornu.ac.kr, (041)570-7973

I.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되면서, 저소득층 및 영세 사업자의 소득분배 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역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이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격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취약계층과 비 취약계층과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고용시장 하에서 정부의 보조금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 보다 지속적면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유도하는 대안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적 복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간의 연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특히 취약계층 중에 가장 심각한 장애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회복과 직업적 신분보장이다. 즉,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또한 산업현장의 신뢰받는 인력으로 사회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과제로 오늘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회에서 조기퇴진 및 명퇴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생산 인력의 소멸로 판단되는 장년층과 노년층은 물론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중, 국가적으로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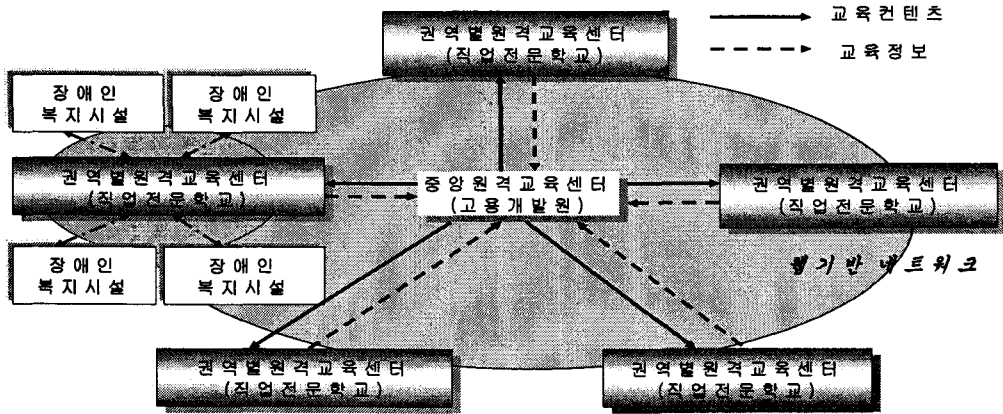
인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주부의 대다수도 고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회복과 직업적 신분보장 그리고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시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새로운 모형 제시하고자 한다.

II.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기존연구

1. 웹기반 원격교육/근무센터 모형

본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2004년 11월 디지털 정책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웹 기반 원격근무·원격교육센터 개발에 관한연구”와 2004년 12월 나사렛대학교 전자 점자 정보 교육 센터의 “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원격교육센터모형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동년 12월 아산 장애인 복지관과의 공동주최로 실시한 e-biz workshop의 발제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연구를 계속하였다. 또한 2004년5월부터 2005년4월까지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정보활용 기회 확대방안연구”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센터는 기존의 소외계층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크게는 지역중심

의 원격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장애인촉진공단과



<그림 1> 취약계층 원격교육센터모델(e-biz workshop의 발제 2003,12)

고용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취약계층 작업 활동시설, 취약계층 직업훈련시설, 취약계층 직업재활센터, 취약계층 전문직업평가센터, 그리고 취약계층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유관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웹 기반 취약계층 원격교육모형이다. 지역 중심의 원격교육센터는 5개 권역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는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기에 원격교육센터의 역할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권역별로 취약계층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원격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원격교육센터의 기본 모형은 위<그림 3>과 같다.

(2)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취약계층 복지시설이 원격근무센터의 핵심이다. 취약계층들은 자신의 생활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근무지로 하고 자기의 집에서 웹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복지시설을 통하여 고용된 업체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업체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행한다.

이때 복지시설은 취약계층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편의와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의 5개 권역별로 산재해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취약계층 원격근무의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직업전문학교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원격근무지를 관리하고, 지역의 고용정보를 권역별로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직업전문학교는 취약계층의 정보 혹은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재교육의 정보를 고용개발원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고용개발원으로 하여금 고용에 따른 재교육 과정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원격근무는 이동성의 제약을 갖는 취약계층들에게 재택근무 등의 취약계층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적합한 근무형태이다. 이러한 원격근무는 원격교육과 서로 맞물려 취약계층의 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고용과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취약계층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취약계층은 이동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재택근무 등과 같은 근무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이란 대상자의 업무능력을 전제로 고용되니 만큼

대상자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위한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면, 필요에 따라

셋째, 현재의 취약계층 고용은 주로 단순 업무 등과 같은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IT의 발전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직종의 근무확대가 가능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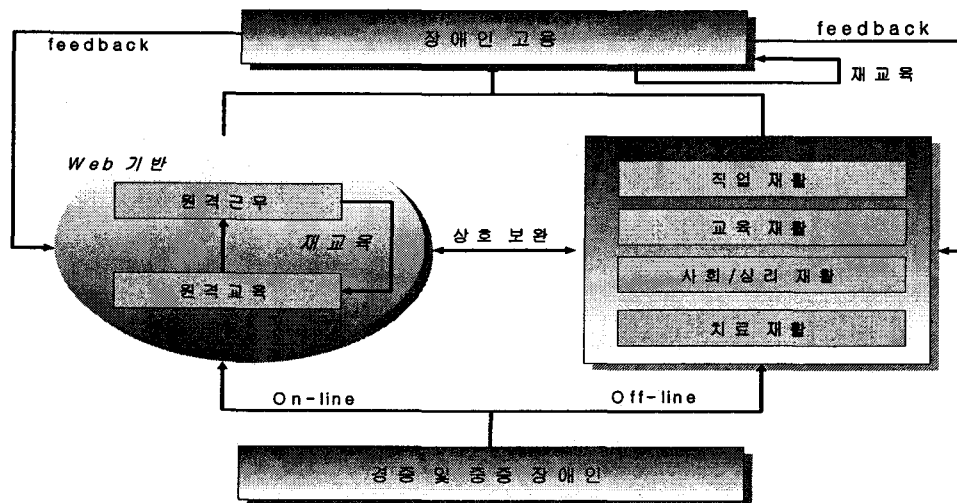
2. 취약계층 고용모형

<그림2>의 취약계층 고용 모형은 경증 및 중증장애인, 즉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고용모형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은 On-line 코스와 Off-line 코스의 과정을 거쳐 고용으로 연결된다. On-line 코스와 Off-line 코스의 과정은 서로 독립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되는데 기존의 off-line과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가능한 한 On-line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진다. On-line 과정은 원격교육과 원격근무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IT와 같은 정보성이 강한

서는 지속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근무를 위하여 재교육과정을 원격교육과 원격근무에서 진행된다. 원격교육과 원격근무는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주로 재택근무 및 재택교육의 형태로 웹 기반에서 진행된다.

Off-line 과정은 기존의 고용촉진 정책인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치료재활의 Off-line 고용촉진 모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직업재활, 교육재활은 상당부분 On-line과정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라인상의 상호보완작업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은 정보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꾸준한 재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새로운 취약계층 고용 패러다임은 원격근무센터와 원격교육센터로 이어지는 웹 기반 On-line 모형과의 기존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취약계층 고용촉진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장애인 고용 모형

<표 1> 각국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특징 비교

구분	직업종합센터 (일본)	하이텔베르그센터 (독일)	하이럼G.엔드류센터 (미국)	장애인직업재활 센터 (한국)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관리/지원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 직업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평가 직업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사업 각종 조사 및 평가
유사기관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센터 1개소 지역마다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마다 존재 (전국 2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마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개 장애인복지관 4개 전문 센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직업강습, 준비훈련 대상 평가 및 보조기구 개발을 위한 대상 (뇌성마비,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사무소, 재 및 실업 보험담당기관 등에서 의뢰된 장애인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며, 성인장애인임 장애유형은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장애유형을 대상 주정부 직업재활청과 15개사무소, 재향군인회 등 장애인단체에서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시설입소장애인 지원고용장애인 기타, 사업주, 장애인
주요사업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직업재활 전반 -심리특성 -보조기구개발 지역 센터 지원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상담, 강습 준비훈련 부분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탐색 직업훈련 보조기구개발 재활정보자료 개발 보급 장신장애인 대상 심리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평가 상담 치료(물리, 작업,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재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기능상의 특징 (중앙 VS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기능수행 -정보, 연구, 연수 -지역센터지도관리 직접 서비스일부 수행 -직업강습, 직업준비훈련 -상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을 기반으로 함 -하이텔 베르그시 직접서비스와 직업재활정보보급 등 지원 서비스일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을 기반(주) 직접서비스가 대부분 -상담평가 -훈련 -직업배치 -사후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개지역의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센터) 4개 센터에서 전문적 직업평가기능 수행

Ⅲ. 외국의 취약계층 고용모형

<표 4>에서와 같이 외국의 장애인 고용 모형은 직업재활의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4>는 직업종합센터(일본), 하이텔베르그센터(독일), 하이럼G엔드류센터(미국),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한국)에서 시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특징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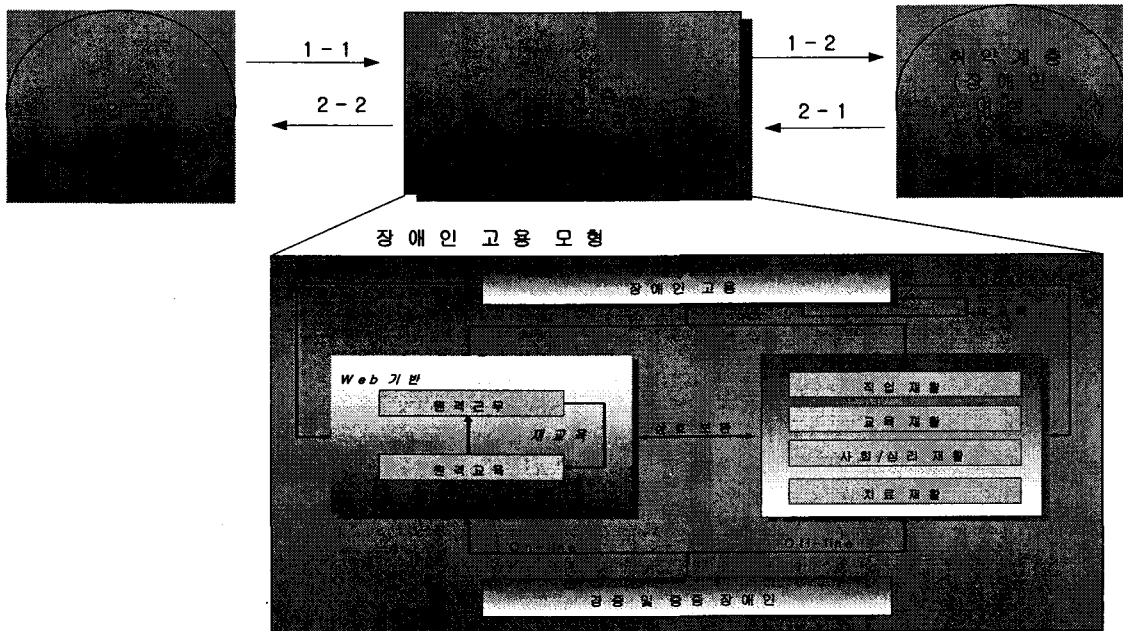
외국의 장애인 고용은 교육, 의료, 사회, 생활 등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연계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사업체와의 다각적인 접촉 하에 인력을 양성하고, 사업체에 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이 있어 지역중심의 서비스실시가 활발하다.

IV. 취약계층 고용혁신모형의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취약계층의 고용혁신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모형은 연구자가 기 발표한 웹 기반 취약계층의 고용모형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그림 3>의 1-1과 1-2에 해당되는 방향으로서, 우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의 수요와 고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사전에 파악한다. 기업체의 수요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파악하며, 취약계층 중에 적합한 노동인력을 선정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교육을 자체 내(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 혹은 외부교육기관(장애인 능력개발센터 등)에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체에 고용을 의뢰한다.



<그림3> 장애인 고용혁신모형

둘째는, <그림 3> 2-1과 2-2에 해당하는 방향으로서, 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능력 및 신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래 고용에 대비하여 우선 업무능력을 갖추게 한 뒤, 적합한 기업체를 발굴하여, 고용으로 연계시키는 형태이다. 업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

3>은 취약계층 중 가장 고용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지정한 취약계층 고용혁신모형으로 장애인과 기업체간의 고용 및 교육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별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고용모형은 인터넷을

이용한 웹상의 고용모형이외에도 취약계층 고용 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의 소득 취약계층을 사회로 환원시키고, 안정적인 고용과 숨어있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전제하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별(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비정규노동 맞춤형 고용/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비정규직노동 고용지원센터(안)에서 지원하게 될 맞춤형 고용/교육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기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상공회의소 소속의 정규 혹은 비정규직 구인현황과 필요 직업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을 활용한 맞춤형 일대일 교육 로드맵을 구축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이 필요한 연구로는 ① 사용자(기업)측면에서 비정규직고용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 파악 ②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을 조사 분석 ③ 취약계층의 선진국사례인 일본의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정책과 비교 분석 수행 ④ 장애인과 같이 이동성의 제약을 갖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교육/원격근무 실행모형의 제안 등이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접점을 생성하는 본 연구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 기업과의 현실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과 고용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노년층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인 일본의 경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취약계층의 고용모델의 개발은 다가올 노령화, 공동화현상과 같은 사회구조의 문제점에 미리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생산력 있는 인력으로 흡수하고자하는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김선규, 장애인고용정책 세미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2. 김종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 2001
3. 김종우,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 서울 특별시, 2001
4. 강종건, e-Biz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 제4회 e-Biz workshop, 2002
5. 노 영, 우리나라의 e-Biz환경과 직업재활의 미래, 제4회 e-Biz workshop, 2002
6. 문영모,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서울 특별시, 2001
7. 박성제, 시각장애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정보 접근에 대한 효율적 인터페이스 구현, 경영정보학회, 2003
8. 보건복지부, 2003 장애인복지사업 자료, 2003
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안내. 2003
10. 변경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적 장애기준의 도입,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1. 변용찬, 생산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2. 소장섭, 장애인 고용의 새 모델 "장애인 중심기업", 2003
13. 이계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 서울 특별시, 2001
14. 이성규, 장애인고용 정책의 발전적 변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5. 이영숙,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 방안, 1998
16. 이태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17. 조선구의 2인, 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원격 교육센터 모형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음성 점자 센터, 2003
18. 장창업의 2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8
19. 장창업의 3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비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2
20. 정해용의 1인, 사이버교육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
21. 최영광, 장애인 e-Bi현황과 주요사례, 제4회 e-Biz workshop, 2002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자료, 보건복지부, 2003
23. 황수경,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24. 황규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2001
25. Sherry, Issues in distance learning, 1995
26. Appu Kttan & Luarence Peters,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2003
27. Stewart Marshall, Wallace Tsyol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Transforming Regional Economies and Communitie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2003
28.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 Surveying the Digital Future, 2003
29. Amanda Lenhart, The Ever-Shifting Internet Population: A New Look at internet Access and the Digital Divide, 2003
30. The Children's Partnership, Online Cotents for Low-Income and Underserved Americans, 2002
31. Rupert Dowing, Bridging Aboriginal Digital and Learning Divides, 2002
32. Morrino Institute, From Access to Outcomes: Rising the Aspirations for Technology Instiatives in Low-Income Communities, 2001